

제4차 산업혁명 속 인간성의 퇴조와 포스트휴먼 디스토피아의 징후적 서사 - 영화 <어쩔수가없다>를 중심으로

김지아*

1. 서론
2. 기술 문명의 전환기 속 아날로그적 기반과 인간성의 동시적 퇴조
3. 제2의 기계시대 속 노동자의 지위 변화와 인간-기계(AI) 간 공생의 허구성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서사와 서사적 주체를 분석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과 제2의 기계시대라는 기술 문명의 전환기 속에서 인간성과 노동자의 지위가 어떻게 위기에 처하고 재구성되는가를 고찰한다. 비록 영화에서 인공지능은 어느 SF 영화들처럼 인격화된 존재로 재현되지는 않지만, 본고는 AI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결합된 기술 체계 전반으로 이해함으로써 영화가 포착하는 인간성의 퇴조와 주체 변형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포스트휴머니즘 및 AI 디스토피아 담론과 한나 아렌트의 노동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삼아, 자동화 중심의 산업 구조가 인간성과 인간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주변화하는지를

* 원광대학교 글로벌 K-컬처 선도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연구교수

검토한다.

영화는 제지 산업이라는 아날로그적 생산 기반의 쇠퇴를 매개로 인간 노동이 AI·디지털 기술 앞에서 점진적으로 불필요한 존재로 재배치되는 과정을 제시하며, 실직 상태의 주체가 경쟁자인 다른 인간을 제거하는 서사를 통해 인간-기계의 관계가 공생이나 제휴가 아닌 비대칭적 권력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효율성과 생존 논리가 중시되는 구조 속에서 인간성은 취약한 요소(장애물)로 재규정되고, 그 과정에서 주체는 기술 체계의 논리를 내면화한 반(反)인간적 주체로 변모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주체의 전환이 영화 안에서 개인의 도덕적 타락보다는 자본과 인공지능·자동화가 결합된 현 산업 구조에 의한 구조적 결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논증한다.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AI 기술의 발전과 확장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낙관적 신화를 해체하며, 자동화된 기술 문명이 인간의 실존적 기반과 윤리적 조건을 어떻게 침식시키는가를 제시하는 포스트휴먼 디스토피아의 징후적 서사로 평가된다. 영화는 AI 시대에 요청되는 과제가 기술 유토피아의 설계가 아닌 인간의 조건과 역할을 재사유하고 재확립하는 데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어쩔수가없다, 박찬욱, 포스트휴먼, 디스토피아, 인공지능, AI, 노동, 노동자, 제4차 산업혁명, 제2의 기계시대)

1. 서론

2025년 9월, 박찬욱 감독이 연출과 공동각본을 맡은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개봉되었다. 감독은 <헤어질 결심>(2022) 이후에 발표한 차기작인

〈어쩔수가없다〉에서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The Ax』(2016)의 서사를 현대의 인공지능(AI) 기술 중심의 산업 환경 속으로 이식하여 과학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과 자본주의적 생산 논리의 결합이 초래하는 인간 노동·윤리·실존의 위기를 전면화한다.

혹자는 본 영화를 포스트휴먼 혹은 인공지능(AI) 담론의 맥락에서 해석하려는 본고의 시도에 의문을 제기할지 모른다. 〈어쩔수가없다〉에서 인공지능은 여타의 SF 영화들처럼 독립적인 인격체로 형상화되거나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주체나 행위자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의 부재는 오히려 영화가 AI를 산업 구조와 노동 질서를 재편하는 체계적·기술적 조건으로 사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간 노동의 대체와 구조 조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 전반의 서사적 배경은 인간의 일 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인공지능·자동화 기술을 자연스럽게 환기한다. 나아가 결말부에 등장하는 전자동(全自動) 공장은 인공지능 기술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술의 진보가 향하고 있는 현시대 문명의 도착점이 공간적 형상으로 구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쩔수가없다〉를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노동의 의미와 인간성의 조건을 침식하는 비가시적이지만 결정적인 방식으로 기능하는 메커니즘을 서사적으로 재현한 텍스트로 간주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박찬욱 감독의 상상력과 문제의식이 설득력을 지니는 이유는, 인공지능(AI)의 발달로 21세기 현대사회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자 ‘제2의 기계시대’로 명명되는 패러다임적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의 일상, 산업 구조, 경제 체제, 사회 전반적 메커니즘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구조적 차원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2년 ChatGPT의 출시는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를 비약적으로 확장시킨 사

건으로, 이는 AI 도구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일상적 차원으로 확장시키며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와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대중화 시대의 도래를 넘어 초지능 AI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인간과 비인간·기술과학의 관계와 공존에 대해 사유하는 포스트휴머니즘¹⁾과 인공지능(AI) 담론 또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포스트휴먼, 또는 AI 관련 담론의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는 유토피아 담론과 디스토피아 담론의 대립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디스토피아 담론은 다양한 미디어적 재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초지능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고 압도함으로써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는 미래를 상정하는 결론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²⁾ 그러나 포스트휴먼 디스토피아가 '인류의 말살'이 아닌 '인간성의 상실'을 상정한다면, 이러한 디스토피아적 전망은 단순한 상상이나 과장된 예측으로 환원될 수 없다.

AI 디스토피아 담론의 기원은 산업사회 후반부에 축적된 사회·경제적 경험에 토대를 둔다. 특히 1950~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 기계화와 자동화의 진전 속에서 소수의 고도화된 두뇌 노동과 단순·반복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노동 기능의 분화와 위계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이 시기에 형성된 이른바 '노동 양극화 테제'는 자동화와 기계화가 노동 시장에 미칠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는 이론적 토대로 기능한다.³⁾ 그리고 이러한 경험적 사실을 출발점으로

1)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 사고(휴머니즘)로부터 벗어나 인간-아님(the non-human), 비인간(the inhuman), 반(反)인간(the anti-human), 비인도적임(the inhumance) 등 포스트휴먼(post human)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려는 담론을 일컫는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의 조건으로 1) 생명력, 2) 자기조직적, 3) 비자연적 구조의 증첩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인공지능(AI)도 포스트휴먼의 조건에 부합한다.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6, 8쪽.

2) 김휘택, 『포스트휴먼: 담론으로 만들어진 존재』, 경진출판, 2025, 81쪽.

삼아 많은 연구자와 연구기관⁴⁾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혁신과 확산이 장기적으로 대량 실업과 노동 시장의 구조적 재편을 초래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⁵⁾ 이러한 비판적 논의는 일자리 감소 현상의 분석에서 나아가 노동 구조의 변화가 '인간성'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문제화한다는 점에서 현(現) 포스트휴먼 디스토피아 담론과 접속한다.

나아가 인공지능은 인간의 판단과 행위를 모방하거나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물이나 결정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간 중심적 규범 체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대-현대사회에서 판단과 책임은 행위자인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귀속되었으나, AI라는 새로운 행위 주체가 개입됨으로써 기존의 인간중심

3) 미국에서 노동분배율은 지난 10년동안 감소했으며, 2010년 3분기에는 57.8%로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동분배율의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L. Karabarbounis와 B. Neiman은 그 원인을 정보 시대의 기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L. Karabarbounis·B. Neiman,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NBER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3, 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19136/w19136.pdf. (접속일: 2025.12.17.); 황태연,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변혁』, 도서출판 중원문화, 2019, 48-49쪽.

4) 버클리리 '일과 지적 도구 및 시스템' 연구단, 스탠퍼드 행동과학고등연구센터의 '일과 노동자의 미래' 연구단, 카네기멜론대학교의 '일과 미래 사업단' 등이 기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5) M. Ford, *Rise of the Robots: Technology and the Threat of a Jobless Future*, Oneworld Publications, 2015; C. Chace, *The Economic Singulari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Death of Capitalism*, Three Cs Publishing, 2016; K. Tangalakis-Lippert, "IBM halts hiring for 7,800 jobs that could be replaced by AI, Bloomberg reports", Business Insider, 2023.05.02., <https://www.businessinsider.com/ibm-halts-hiring-for-7800-jobs-that-could-be-replaced-by-ai-report-2023-5>. (접속일: 2025.12.17.); J. Briggs·D. Kodnani, "The Potentially Larg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Economic Growth", Goldman Sachs, 2023.05.26., <https://www.gspublishing.com/content/research/en/reports/2023/03/27/d64e052b-0f6e-45d7-967b-d7be35fabd16.html>. (접속일: 2025.12.17.)

의 윤리적 질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⁶⁾ 이에 만약 인간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권리를 기계에게 양도함으로써 자율성의 위계가 역전된다면, 인간은 AI와의 제휴(partnership)에서 주체적인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기술 체계의 가장 큰 제약 요소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⁷⁾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인공지능의 사회적 활용과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적 틀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⁸⁾ 이에 최근에는 알고리즘 권력과 윤리적 통제 문제의 중심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의 불평등과 차별, 책임 공백의 위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들은 AI 기술의 발전을 단순한 기술 혁신의 차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규제 방식과 입법 전략을 포함한 제도적·윤리적 대응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⁹⁾

그러나 위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러 석학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삶의 질과 편익에 기여할 것이며, 초인적 지능을 갖춘 AI가 개발될 때 ‘인류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¹⁰⁾ 인공지능 개발에

6) 헨리 A. 키신저·에릭 슈미트·대니얼 허튼로커, 『AI 이후의 세계: 챗GPT는 시작일 뿐이다, 세계질서 대전환에 대비하라』, 김고명 역, 월북, 2023, 229쪽.

7) 헨리 키신저·에릭 슈미트·크레이그 먼디, 『새로운 질서: AI 이후의 생존 전략』, 이현 역, 월북, 2025, 99쪽.

8) 계승균,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189쪽.

9) 김건우,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파이돈, 2023; 헨리 A. 키신저·에릭 슈미트·대니얼 허튼로커, 앞의 책; 마크 그레이엄·제임스 멀둔·캘럼 캔트,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 인공지능 신화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김두완 옮김, 흐름출판, 2025;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사회의 규범 3: 포스트휴먼 사회와 새로운 규범』, 아카넷, 2019; 한세경, 『인공지능 권력시대: 원시시대부터 AI시대까지의 인류사회 권력구조 변천사』, 아이리포, 2025.

10) 에릭 브린올프슨·앤드루 맥아피, 『제2의 기계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이한음 역, 청림출판, 2016, 315쪽; L. Kai-Fu, *AI Superpowers China, Silicon Valley, and the New World Order*, Houghton Mifflin, 2018; 토마스 랫게, 『누가 인

참여하는 기관들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경험과 판단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용도로 쓰일 것이라 강조한다.¹¹⁾ 기계가 인류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기계는 인류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것이다.¹²⁾ 이처럼 AI 및 자동화 기술을 두고 제2의 기계시대 담론은 관련 기술의 고도화가 유례없는 부와 효율성을 창출하면서 인류의 진보를 촉진할 것이라 전망한다.¹³⁾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을 균등하게 개선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산업 전환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경험적 사실에 가깝다. 과학기술은 인류사회의 번영을 약속하지만 이러한 혁신의 성과가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고르게 귀속될 것이라 보장하는 경제 법칙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¹⁴⁾

나아가 고바야시 마사카즈가 “AI가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AI가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죽일 수 있다는 점”¹⁵⁾이라고 지적했듯,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문제는 AI 기술 그 자체보다 해당 기술이 매개하는 사회 구조와 가치체계가 인간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I 기술 체계가 노동과 윤리를 매개로 인간성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침식하는지, 그 구체적인 역학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

공지능을 두려워하나?: 생각하는 기계 시대의 두려움과 희망』, 이수영·한종혜 편역, 다섯수레, 2021; 로랑 알렉상드르, 『넥스트 인텔리전스: 인공 지능 시대, 인류의 다음을 설계하다』, 임호경 역, 열린책들, 2025.

11) 에릭 브린올프슨·앤드루 맥아피, 앞의 책, 120-121쪽.

12) 스텔러트 러셀,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이한음 역, 김영사, 2021, 23-28쪽.

13) 에릭 브린올프슨·앤드루 맥아피, 앞의 책, 125쪽.

14) 위의 책, 165쪽.

15) 고바야시 마사카즈, 『인공지능이 인간을 죽이는 날』, 한진아 역, 새로운 제안, 2018, 211쪽.

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노동의 박탈이 인간의 실존적 조건과 윤리적·자율적 판단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해체하는가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고찰 또한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AI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자동화 기술 문명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국면, 그 공백의 상태를 서사적으로 포착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영화는 AI 및 자동화 시대에 기계에 의한 노동자의 대체를 개인의 무능이나 실패로 환원하지 않고 효율성과 생존 논리가 지배하는 구조적 폭력의 문제로 재현한다. 이를 통해 작품은 AI 기술에 내재된 반(反)인간적 메커니즘과 그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시화하며, 기술 진보에 대한 낙관론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텍스트로서 기능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어쩔수가없다〉를 포스트휴먼 및 AI 담론의 지형 속에 위치시키고, 해당 작품을 단순한 미래적 상상이 아닌, 자본의 논리에 기초한 현대의 산업 구조 속에서 이미 진행 단계에 있는 AI 디스토피아의 징후적 서사로 의미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의 사상적·이론적 관점에서 작품 속 서사적 주체의 변형을 중심으로 인간적 조건의 해체(노동자의 위기, 윤리의 전도 현상, 인간성의 소멸 등)라는 작품 내 문제의식을 면밀히 검토한다.

2. 기술 문명의 전환기 속 아날로그적 기반과 인간성의 동시적 퇴조

영화는 주인공인 유만수가 ‘인간미 있는 인간(좋은 사람)’에서 ‘비인간적인 인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중심 서사로 채택한다. 이에 영화는 서사 초

반부에 만수의 인간적인 면모를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영화는 제지회사 [태양 제지]의 생산라인 반장으로서, 공동체의 생존과 조합적 연대를 위해 상부로부터 하달된 해고자 명단 작성 지시를 거부하고 윗선을 설득하는 만수의 태도와 행위를 통해 그의 인간미를 전면화한다. 특히 주체가 [태양 제지]를 인수한 외국 기업의 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연설을 준비할 때, 한 노동자가 “인간미 있어.”라고 말하자 만수가 뿌듯한 미소를 짓는 순간은 그의 인간적인 품성이 확인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인간미의 발현은 역설적으로 그의 해고를 초래하고, 영화는 실업자가 된 유만수가 책임감¹⁷⁾, 죄책감¹⁸⁾, 모욕감¹⁹⁾, 좌절감²⁰⁾, 수치심과 무기력함²¹⁾, 부러움과 질투²²⁾ 등 자기인식과 결부된 부정적 감정들을 연쇄적으로 경험하는 상황들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체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미는 주체가 속한 체계의 내부와 주체의 내면, 양측에서 배제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제의 과정은 영화가 배치한 서사적 배경과 긴밀하게 연동된다.

16) “만수, 이 평가가 딱 마음에 든다.” 박찬욱·이경미·돈 맥켈러·이자혜, 『어쩔수가없다 각본』, 2025, 을유문화사, 13쪽.

17) 취업훈련원에서 강사가 각자 자기만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주문을 외우라고 할 때, 만수는 “새출발새출발새출발, 나는 남자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거듭난다, 나는 식구들 입에 밥을 넣어 주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나는 내 집을 지킨다.”라고 주문을 외운다. 위의 책, 21쪽.

18) 취업훈련원에서 강사가 해고자들에게 “실직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보드를 보여주자 만수가 ‘울컥’하는 장면은 그가 내심 실직을 외부요인에 의한 결과가 아닌 자신의 잘못과 책임으로 내적 귀인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위의 책, 18쪽.

19) “만수, 모욕감을 느낀다.” 위의 책, 32쪽.

20) “좌절하는 만수, 무릎 꿇은 채 고개 푹 떨군다.” 위의 책, 39쪽.

21) “수치심에 사로잡힌 채 무기력하게 선출이 밀어 대는 대로 찌그러진다.” 위의 책, 40쪽.

22) “부러운 나머지 속이 상한 만수, 랩탑을 확 덮어버린다.” “만수가 질투에 몸을 떨면서 몸을 돌리자마자 눈 뜨는 미리, 슬며시 주위를 살피지만 남편은 이미 멀어지고 있다.” 위의 책, 29쪽, 103쪽.

예컨대 만수가 몸담고 있었던 제지 산업은 <어쩔수가없다>가 인간성의 위기를 구조적으로 사유하는 매개적 장치로 기능한다. 여기서 제지 산업은 다양한 제조업 중에서도 언어, 문자, 그림, 사진 등 인간의 표현 체계가 작동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아날로그적 인간성²³⁾이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를 형성해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쩔수가없다>의 각본이 제지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 대형 기계를 ‘공룡’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데,²⁴⁾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의 배경 속 인간적 가치 규범의 해체, 윤리의 소거, 그리고 반(反)인간적 가치체계에 대한 감독의 관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해석적 단서로 기능한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종이와 오랜 시간 담당해온 기록, 소통, 기억의 기능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생성형 AI, AI 챗봇 등 디지털·AI 기술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각본은 이러한 기술 환경의 전환 속에서 제지 생산 기술이 구식 종(種)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멸종된 공룡에 비유함으로써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해당 비유는 비단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지 산업의 쇠퇴를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생태계 내부에서 진행되는 노동력의 종적(種的) 교체를 지칭하는 거시적 변동에 대한 은유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아날로그적 표현 체계와 이를 매개하던 기술이 고도의 디지털·AI 기술에 의해 점차 주변화되는 진화론적 전환의 과정과 그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대체를 암시한다. 특히 영화에서 제2의 기계시대가 도래한 기술 문명의 전환기에서 제지 관련 최신 기술이 ‘폐지 재생’임이 반복적으로 강

23) 여기서 ‘인간성’은 도덕적 감수성, 윤리적 판단, 타자와의 관계적 연대 및 책임, 자율성, 창의성 등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요소(조건)들의 총체로 구체화될 수 있다.

24) “한 줄로 엮드린 강철 공룡들처럼 길게 이어진 기계들, 압도적인 소음.” 박찬욱·이경미·돈 맥켈러·이자혜, 앞의 책, 10쪽.

조되는 장면은, 인간 노동력의 잉여성과 비생산성을 부각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²⁵⁾

이처럼 감독은 제지 산업의 쇠퇴적 국면과 그 과정에서 탈락한 노동 주체를 통해 인간이 생산자 또는 노동자로 호명되지 못하는 위기를 제시한다. 그리고 영화는 이러한 종적 한계 및 위기 상황의 조건 속에서 인간 노동력이 경제적 가치 산출의 중심으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을 포착하며, 그 결과 ‘멸종’이라는 생물학적 은유가 추상적 비유를 넘어 실제 현실과 사회 문제로 전이되는 양상을 구체화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파피루스] 면접 장면은 자동화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가 인간 노동을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한 결합적 존재로 전제하고 있음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당신의 단점이 뭔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라는 면접관의 질문은 표면적으로 면접자의 자기객관화와 자기성찰 능력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 노동력이 기계와 비교되는 평가 체계 속에서 노동자가 필연적으로 그 ‘열등함’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만수는 이러한 면접관의 질문에 “싫은데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성격, 이게 제 제일 큰 약점입니다.”라고 답한다. 앞서 설명했듯, 만수는 동료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상부의 지시에 불복했다가 해고된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이에 주체는 기술·효율 중심의 생존 구조에서 자신의 관계적 윤리나 자율적 판단이 오히려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약점’으로 규정하여 이를 숨기는 방식으로 답변을 구성한다. 자신의 인간성이 현재의

25) “폐지를 모아가지구 리싸이클하고 또 그 폐지 모아서 또 리싸이클하고, 우리나라가 종이 재생 최선진국이거든요? 줄라 무한 재생!” “종이 만드는 나무는, 따로 키워서 베고 거기 또 심어서 키우고 베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아니거든요, 재생이란 게 있어요. 폐지를 모아가지구 리싸이클하고 또 그 폐지 모아서 또 리싸이클하고.” 박찬욱, <어쩔수가 없다>, 2025.

산업 구조 및 노동 체계 안에서 기피되는 가치로 간주될 것을 예감하고 그 구조적 압력에 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거짓을 택한 것이다. 영화는 이처럼 산업·기술 구조의 변화가 인간 노동의 위기와 인간성의 주변화를 수반하고, 나아가 개인의 가치판단 체계까지 변형시키는 과정을 장면적으로 형상화한다. 인간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는 현시점에서 인간성이 노동자의 취약성과 비효율성을 노출시키는 요인으로 재규정되고, 그 결과 인간성이 생존의 논리 속에서 생존에 불리한 조건이자 배제의 대상으로 전략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처럼 영화는 주체의 인식과 판단 체계 안에서 '타자와의 관계적 윤리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요소'로서의 인간성이, 생존 논리와 가부장적 자아의 보존 앞에서 지속적으로 유보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성을 체계적으로 주변화하는 기술·효율 중심의 산업·사회 구조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이후, 주체에 의한 인간성의 포기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형상화된다. [파피루스]의 면접에서 탈락한 만수는 최근 일본 판로를 개척한 [문 제지]에 입사하기 위해 유력한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비인간적인 행위의 실천에 돌입한다. 이때 그의 살해 대상들은 제지 산업에 종사해온 해고자라는 점에서 주체와 유사성과 동질성을 공유한다.

첫 번째 희생자로 지목된 '구범모'는 철저한 아날로그 인간으로 소개된다.²⁶⁾ 그런데 이 '기술자'이자 '전문가'로서 강한 직업적 자부심을 지닌 범모는 영화 안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상황에 놓이며 부정적인 성격을 부여 받는다.²⁷⁾ 그는 8개월간의 실직 상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

26) “철저한 아날로그 인간으로서 저는, 음악은 바이닐로만 듣고 사진은 필름으로만 찍으며 편지는 오로지 종이로만 씁니다.” 박찬욱, 〈어쩔수가 없다〉, 2025.

27)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범모라는 인물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범모에 대한 만수의 투사를 통해서도 형성된다. 각본에는 이러한 투사의 과정은 “만수, 주제 파악을 못하는 범모의 미련함이 괜히 더 거슬리고 헛웃음이 난다,” “만수, 범모가 너무 자기 같아

이지 않을 뿐 아니라,²⁸⁾ 절제력이 부족하고, 가정에 소홀하며, 아내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제안”(직종 변경)도 완강히 거부하는 패배자적 성향이 짙은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그는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적·기술적 환경에 순응하거나 적응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시대적 흐름에 저항하는 인간형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의 타협 불가능성은 그의 도태, 대체²⁹⁾, 그리고 제거로 귀결된다. 따라서 범모의 아내 ‘아라’가 범모의 문제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그를 살해하는 장면은³⁰⁾, 제4차 산업혁명으로 돌입한 전환기의 시대에 변화를 거부하는 구성원이 체계 내부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간주되어 폐기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서사적·상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만수가 구범모의 죽음에 일조한 이후, 주체는 인간적 윤리와 정동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에서 기술 문명과 그 논리를 체현하는 표상적 주체로 이행한다. 이러한 전환은 영화 속 댄스파티 장면에서 상징적으로 제시되는데, 해당 장면에서 만수와 미리는 각각 존 스미스(효율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 문명)와 포카혼타스(자연과의 연속성 위에 놓인 인간적 윤리와 정동)로 분장함으로써 기계 문명과 인간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항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영화에서 두 인물은 오랜 연습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서 험오스럽다.” “만수, 범모가 더 꼴 보기 싫고 더 화가 난다” 등의 지문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박찬욱·이경미·돈 맥켈러·이자혜, 앞의 책, 93-94쪽.

28) 영화속에서 범모는 구직 활동(오디션)을 하러 나서는 아내(아라)와 달리, 집 안에 머물며 씻지도 않고 술에 의존함으로써 실직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에 주체는 금주(禁酒)에 계속 실패하게 되는데, 영화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범모의 주체성의 상실과 지속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무기력함을 드러낸다.

29) 범모의 아내(아라)가 신인 배우(이준오)와 육체적 바람을 피운다.

30) “실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니가 실직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게 문제라고!” 박찬욱, 〈어쩔수가 없다〉, 2025. 이는 직전에 만수가 “너는 아내의 합리적인 제안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 음악 카페가 어때서, 영?”이라고 범모를 타박한 장면을 상기시킨다.

하고 끝까지 함께 춤을 추지 못하는데, 표면적으로 이는 만수의 질투와 열등감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제시되지만, 이후의 서사적 전개를 고려했을 때 해당 장면은 비인간(인공지능)-인간 간 공존과 협력에 대한 기대가 구조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즉, 두 사람의 합무(合舞)가 끝내 성립하지 못하는 전개는, 인간과 기계가 조화로운 공생 관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휴머니즘적 상상과 기대가 좌절된 현실을 은유한다.

이처럼 영화는 기술 체계의 논리를 내면화한 주체가 더 이상 인간적 가치 규범을 따르지 않고 기술 문명이 요구하는 효율성과 목적성의 논리에 따라 타자(인간)를 착취 대상으로 환원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주체가 다음 희생자(‘고시조’)를 살해하는 방식은 한층 더 교묘하고 계획적이며 또 잔혹해진다.

주체의 두 번째 시도는 실행 단계에서부터 범모를 향한 동질감, 동정심, 연민이 개입되어 아슬아슬하고 우스꽝스럽게 연출된 첫 번째 시도와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특히 만수가 구범모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방아쇠 당기는 일을 어떻게든 미루고 싶었다”³¹⁾라는 각본 내 지문을 고려하면, 만수가 첫 번째 시도에서 서툴렀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초범이기 때문이기보다는 그의 내면에 잔존하는 인간적 감정과 윤리적 주저가 그의 계획을 실패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만수는 범모를 살해하려던 현장을 아라에게 목격당했을 뿐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흥기를 현장에 두고 오는 등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 그의 인간적인 흔들림이 살인의 완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범모를 살해하지 못하고 도주한 시점에서 만수의 계획은 애초부터 실패한 것이었다.

31) 박찬욱·이경미·돈 맥켈러·이자혜, 앞의 책, 93쪽.

그리고 첫 번째 살인 이후, 주체는 동정심, 연민, 이타성 등 인간적인 감정이 자신의 목적 달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상대의 인간미를 정서적 취약성으로 수단화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이처럼 영화는 폭력 수행 전략의 변화를 통해 인간성의 전유 과정을 본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대 기술 체계의 논리를 내면화한 주체가 인간성을 겨냥하는 체계적 폭력의 기제로 전환되는 양상을 구체화하고, 기술과 효율 중심의 규율체계에 내포된 반(反)인간적 가치구조를 비판적으로 폭로한다.

고시조를 살해하기 위해 만수는 상대의 이타심을 이용해 살인에 유리한 상황을 만든다. 구체적으로 그는 시조에게 자신과의 공통점(동일 업종에서의 경력, 실직 상태라는 공통된 처지, 그리고 딸을 둔 아버지라는 위치 등)을 제시하여 자신에 대한 시조의 친밀감과 신뢰를 확보한 후, 상호 간에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그러나 시조는 곧 도움을 요청하는 만수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살해되는데, 여기서 고시조의 죽음은 그 이름에 내포된 상징적·은유적 층위³²⁾와 인물의 성격적 특성이 결합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고시조는 인간미와 선의, 정서적 공감 능력을 갖춘 인물로, 구범모와 함께 ‘아날로그적 인간성’을 표상하는 인물로 해석된다. 다만, 아날로그성의 성격적 측면에서 구범모와 고시조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인물을 통해 발현되는 아날로그성의 차이가 곧 서사적 기능과 가치론적 함의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32) 고시조의 이력서에 한자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화면 연출상 그 정확한 표기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조(始祖)’가 “한 겨레나 가계의 맨 처음이 되는 조상” 또는 “나중 것의 바탕이 된 처음의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해당 명명에는 상징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관점에서 고시조는 인간사회를 성립시켜온 윤리적 기원, 곧 선의, 공감, 이타주의 등 인간성의 시원(始原)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면, 구범모는 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폐쇄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로, 그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경직적 아날로그성'을 표상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구범모는 제2의 기계시대로의 전환기 속 저항자(불응자)로 위치되며, 현(現) 사회·산업 체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제거하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구범모의 죽음은 아날로그적 주체가 구조적으로 도태(배제)되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고시조는 정서적 개방성과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두드러지는 인물로 인간사회의 도덕적·정서적 토대를 형성해온 '아날로그적 기원으로서의 인간성'을 체현한다. 특히 영화 안에서 그는 선의를 바탕으로 타인을 돕는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로써 그의 죽음은 그가 표상하는 인간적 윤리가 기술 문명 속에서 유지와 지속의 가치가 아니라 도구화되어 소진되고 파괴로 전도되는 역설적 운명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 고시조가 인간적 감수성을 발휘한 그 순간에 만수에 의해 살해되는 서사적 전개는, 현대의 기술·효율 중심의 논리와 질서가 인간적 요소들(선의, 공감, 유대)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나아가 만수의 반(反)인간적인 면모는 시조의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에서 더욱 극명하게 연출된다. 주체는 시체를 자택 온실로 옮긴 뒤, 그를 전기톱으로 토막 내려다 포기하고, 다년간의 취미생활을 통해 숙련된 '수형(樹形) 잡기'³³⁾로 시조의 신체를 압축시켜 고정함으로써 시신을 처리하기 용이한 상태로 만든다. 그 결과, 시조는 벌거벗은 채 자신의 사타구니에 코를 박고 둥글게 웅크린 공벌레와 같은 형상이 되는데, 이처럼 기계 체계에 종속된 하나의 부품으로 환원된 고시조의 모습은 그 자체로 폭력적인 이미지로서 인간의 탈인간화를 형상화할 뿐 아니라 마치 데이터처럼 압축되

33) 이는 철사를 감아 분재의 성장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일컫는다.

어 그 성장 가능성과 존재적 확장 가능성이 철저하게 차단된 인간의 존재론적 축소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그림 1〉 참고).



〈그림 1〉 만수에 의해 형태가 고정된 고시조의 시신

이후, 고시조까지 처리한 만수는 이른바 ‘마지막 면접’³⁴⁾을 치른다. 주체는 고시조에게 접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문 제지]의 특수지 라인 반장인 최선출의 공감력과 연대의식을 이용해 그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업계 및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출의 비리가 드러나는데,³⁵⁾ 이를 통해 영화는 노동자의 비윤리성이 생산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노동자의 취약성과 일탈 가능성을 지적한다.³⁶⁾

34) 만수는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일을 두고 아내에게 면접을 보러 간다고 둘러대는데, 실상 노동자를 ‘선별하고 심사하는 평가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만수라는 점에서 이는 역설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다.

35) 최선출이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부민)의 특수지 제조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었다.

36)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한 구범모나 고시조와는 대조적으로, 최선출은 그 비리 행위에 대한 응징을 받듯 땅속에서 고통스럽게 질식사한다. 그러

최선출은 자신의 비리가 밝혀지자 부끄러움과 불안을 무마하기 위해 만수에게 폭탄주를 권한다. 만수는 폭력적인 술버릇 때문에 9년 동안 금주를 해왔지만, 선출이 강요하는 유대감의 압박 속에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마신다. 흥미로운 점은 만수가 술에 취해 어린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과거를 제시함으로써 영화가 만수의 인간적 자제력과 윤리적 판단능력을 무너뜨리는 매개체가 술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특히 “술 먹으면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개니까!”라는 미리의 발화는 서사적 맥락 안에서 술이 만수의 인간다움을 말소시키는 기능적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을 구체화한 대사로 해석된다.

이어서 만수는 술김에 자신을 계속 괴롭히던 충치가 난 치아를 펜치로 뽑아내는데, 여기서 부식된 치아는 그의 인간적 양심이 장기간의 좌절과 실직 경험 속에서 서서히 훼손되어 온 과정을 표상한다. 그리고 이처럼 과장되고 폭력적으로 연출된 만수의 발치 장면은 그가 내면에 남아있던 일말의 양심(인간성)까지 제거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한다.

따라서 술은 주체를 비인간적인 주체로 이행시키는 촉매로 기능하지만, 그 결정적인 전환은 주체가 스스로 인간적 판단과 감정을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요소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다. 이에 발치는 주체가 현 기술 문명 및 체계의 가치에 자신을 정합시키기 위해 인간적 요소를 제거하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 및 전환의 단계는 주체가 더 이상 인간적 정동이나 윤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했음을 드러

나 만수가 사고로 위장한다는 명목으로 최선출의 입에 깔때기를 대고 음식을 강제로 주입한 후, 비닐로 그 얼굴을 밀봉하는 장면은 선출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로 의미화되기보다는, 노동자의 통제 불가능성과 이탈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지배 체계의 강압적이고도 폭력적인 통제 논리와 기제(機制)를 시각화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내며, 이후 그가 수행하게 될 반사회적 행위(살인)가 이러한 전환에 대한 필연적인 귀결임을 제시한다.³⁷⁾

곧이어 만수는 술에 굶아떨어진 선출을 생매장시키는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실행한다. 해당 장면은 만수의 아버지가 과거 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돼지 이만 마리를 산 채로 묻어 죽였던 사연을 상기시키며, 영화는 이러한 폭력의 계보를 가족사적 차원에서 중첩시킨다. 그러나 폭력 이후 각 주체가 죄책감과 책임의식을 감각하는 방식의 차이를 통해 영화는 두 사례 간 윤리적 인식 구조의 차이를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만수의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에 이어 해당 사건 이후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살에 이르지만, 만수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³⁸⁾한 상태에서 동일한 형태의 살생을 반복하고 폭력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두 주체는 서로 구별된다. 이러한 대비는 폭력 그 자체보다 폭력을 둘러싼 윤리적 감각의 변화, 즉 인간이 살생을 인식하고 책임지는 방식의 변화를 부각시킨다. 나아가 이는 제2차 산업혁명기와 달리, AI 및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대의 산업 구조가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정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마비시키며, 인간성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침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영화는 두 주체의 대비를 통해 기술 문명과 결합한 현대의 산업 메커니즘이 폭력에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책임과 성찰의 감각을 필수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조건을 형

37) 살인은 인간적 가치 규범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간주되지만, 영화가 가정하는 기술·자본 중심의 질서 속에서 이는 체계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의 행위는 체계의 효율성과 생존 논리를 내면화한 결과로 제시되며, 그 폭력성은 개인의 악의가 아닌 시스템적 요구의 산물로 재맥락화된다.

38) “아,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 앞의 두 사람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잖아. 개 죽음 안 만들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 박찬욱, 〈어쩔수가없다〉, 2025.

성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후, 최선출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만수는 [문 제지]의 유력한 채용 후보로 면접장에 선다. [파피루스] 면접에서는 손바닥에 답변을 적어두던 그가 [문 제지]의 면접 장면에서는 손바닥에 아무런 글씨도 적지 않은 채 면접에 응하는 장면은 그가 기술·효율 중심의 산업 구조가 요구하는 가치와 그 체제 논리를 완전히 내면화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구요.”라는 주체성의 언어 또한 “시대를 거스를 수가 있네요.”라는 시대 순응적 발화로 대체된다. 생존 앞에서 인간의 자율적인 판단력과 자기표현의 원칙이 구조에 대한 순응의 논리에 수렴된 것이다. 이에 만수는 시스템에 복속된 주체를 넘어 시스템의 논리를 체현하고 해당 체계가 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내부 주체로 선별된다.

나아가 이러한 체제 논리의 내면화는 곧이어 제시되는 공장의 시각적 대비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노동자라고는 관리자인 유만수가 유일한 [문 제지]의 전자동(全自動) 공장³⁹⁾은 서사 초반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표어 아래 노동 인력이 가득했던 [태양 제지]의 공장 풍경과 극명하게 대조된다(〈그림 2〉 참고). 이러한 대비는 디지털·자동화 기반의 생산체계가 판단과 결정의 과정에서 노동자를 배제하고, 노동자가 상호 연대를 통해 집합적 주체로 형성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노동자를 개별화된 기능 단위로 분절함으로써 구조에 맞서는 공동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구조적 조건을 가시화한다. 이처럼 영화는 변화된 노동 환경과 조건을 통해 만수가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던 ‘능동적 주체’에서 ‘체계의 일부’로

39) 여기서 전자동 공장은 공장 전체가 전면 자동화되어 공장 내 노동 인력(손 노동자, 육체적 중노동자)이 사라지고 정신기능을 가진 소수의 기계 점검 및 수선 노동자만 남아 있는 자동화 단계의 공장을 일컫는다. 황태연, 앞의 책, 48-49쪽.

편입되었음을 시각적·공간적으로 재현한다. 그리고 전자동 공장에서 “만 죽한 얼굴”⁴⁰⁾을 한 만수의 모습은, 그가 체계의 논리를 수행하는 자동화된 주체, 즉 탈인간화된 존재로 이행되었음을 확정적으로 보여준다.



① [태양 제지] 내 공장의 풍경 ② [문 제지] 내 전자동 공장의 풍경

〈그림 2〉 제지회사 [태양 제지]와 [문 제지] 공장 풍경의 대비

이처럼 〈어쩔수가없다〉의 서사는 AI 기술과 자동화 중심의 기술 문명 속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전락한 노동자가 인간적 규범을 적극적으로 배반하고 체계의 논리를 수행하는 폭력의 주체로 변형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성과 윤리는 생존 논리 앞에서 취약함이자 장애 요인으로 재규정되며, 그 결과 해당 가치는 우선순위 체계에서 빠르게 배제된다. 그리고 영화는 이러한 가치 규범의 재편이 현 기술·산업 구조에 내재된 사회 구조적 메커니즘의 산물임을 지적한다. 이에 영화가 재현하는 인간성의 상실 및 소멸은 자동화·기계화된 기술 체계 속에서 인간이 수행하던 기능이 디지털·AI 기술로 완전히 대체되는 종(種)적 전환의 징후(豫後)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영화는 현 사회가 기술 체계의 논리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내면

40) 박찬욱·이경미·돈 맥켈러·이자혜, 앞의 책, 187쪽.

회함에 따라 인간이 데이터와 알고리즘 연산 등 ‘비인간화된 항목’으로 환원되는 ‘탈인간화의 과정’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의 형태로 구현한다. 실직 상태의 주체가 생존을 위해 경쟁자인 다른 인간을 제거하는 서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 속에서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윤리, 정서, 관계성에 기반한 존재로 존속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구조적으로 해체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3. 제2의 기계시대 속 노동자의 지위 변화와 인간-기계(AI) 간 공생의 허구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기술 문명의 발전 속에서 명령과 생존의 논리가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정지시키고 인간적 규범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윤리 강령을 해체하는 구조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체계와 윤리 강령의 전도는 영화의 각색에만 국한된 문제의식이 아니라 1990년대 미국을 서사적 배경으로 설정한 원작이 이미 날카롭게 포착했던 시대적 변화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원작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의 윤리성을 배제하는 사고방식이 더 이상 개인의 예외적이고 반사회적인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연하게 승인되는 규범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문제화한 바 있다.⁴¹⁾

41) “이제 우리의 윤리 강령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아이디어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한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게 부적절한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공연하게 떠벌리기까지 한다.”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 『엑스』, 최필원 역, 오픈하우스, 2025, 325쪽.

그러나 이러한 원작 내 문제의식에 더해, 〈어쩔수가없다〉는 자본주의적 가치체계가 촉발한 AI 기술의 확산과 가속화가 어떻게 인간성을 침식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는지, 그 과정을 서사화함으로써 동시대 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특히 영화는 ‘인간-포스트휴먼의 공생’ 가능성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의 도래 속에서, 인간이 윤리적·생태적 차원에서 공생(공존)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인간-인간의 경쟁 구도가 인간-비인간(AI·기계)의 경쟁 구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세태를 두고 영화는 인간-인공지능의 관계가 ‘협력적 상호작용’과 ‘제휴(partnership)’의 차원에서 성립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고 갈등적인 권력 관계로 재편될 미래를 회의적으로 제시한다. 노동자가 기술 체계에 맞서 서로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노동 조건에 놓인 타인을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구조적 책임을 수평적 폭력으로 전도시키는 급진적인 서사를 통해 자본주의에 입각한 기술 중심의 질서와 규범이 인간의 연대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노동자들을 상호 적대와 경쟁의 구도 속으로 조직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⁴²⁾

따라서 〈어쩔수가없다〉가 실질적으로 문제 삼는 대상은 주체의 개별적인 선택이 아닌, 그 선택을 불가피한 것(어쩔 수 없음)으로 조직하고 강제하는 시스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영화에서 문제시하는 주체의 반(反)인간화와 윤리적 전도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심리적 일탈로 환원될 수 없으며,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사회·경제적 구조의 차원에서

42) 원작에서도 주인공인 ‘버크 테보레’는 자신의 실적이 기업의 임원과 주주들의 결정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적’임을 자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중심을 향한 저항 대신, 같은 위치에 놓인 경쟁자들을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지정한다. 위의 책, 66쪽.

사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영화에서 재현되는 인간-기계(기술)의 관계는 기술 체계를 매개로 한 새로운 권력 질서의 형성과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어쩔수가없다〉에 제시된 AI 디스토피아의 징후적 서사를 중심으로 기계적 규범이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을 침식하는 방식과 기계 체계에 내재된 반(反)인간적 속성이 사회적 관계와 윤리적 기반을 해체하는 방식을 병행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장은 ‘비(非)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기존의 인간적 규범을 적극적으로 파기하며 기술 체계의 폭력성을 수행하는 ‘반(反)인간적 주체’의 형성 과정을 서사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기술자본의 논리를 내면화한 사회가 인간-인공지능의 공생으로 나아가기보다 인간을 기술 체계의 하위 구성요소로 전락시키고 인간적 가치의 퇴행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밝힌다.

영화 안에서 기계적 규범이 인간의 규범을 침식하고 반(反)인간적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은 AI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가 인간의 삶을 지탱해온 근본적인 조건 중 하나인 ‘노동’의 영역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어쩔수가없다〉는 AI 기술을 토대로 한 자동화·효율성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인간의 노동 가치가 점진적으로 소거되는 양상을 서사적·상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술 체계에 내재된 반(反)인간적 메커니즘을 가시화한다.

AI 기술 중심의 기술적 생산 질서가 인간의 노동 가치를 어떻게 재편하고 소거하는가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어떤 기준과 논리에 의해 가치화되어왔는가에 대한 고전적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로크와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 산출한 ‘생산물’의 가치가 그 생산물이 물질적 세계에서 얼마나 오래 존속되는지, 그 지속성과 사

용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생산물이 충분한 기간 유용성을 지니고 다른 것과 교환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생산물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⁴³⁾

이러한 관점에서 <어쩔수가없다>에서 중요한 소재로 제시되는 종이는 오늘날 만물이 디지털화되는 환경에서 그 지속성과 교환 가능성을 유지하지 못한 생산물을 대표한다. 그리고 영화가 재현하는 제지 산업의 쇠퇴는 종이 자체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온 인간 노동의 가치 또한 동시에 축소되고 실효화되는 과정을 함축한다. 이에 영화가 주요한 서사적 배경으로 설정한 제지 산업의 쇠퇴는 종이라는 생산물의 가치 하락을 매개로, 인간의 노동력이 AI 및 자동화 기술 앞에서 점진적으로 무력화되고 주변화되는 시대적 전환을 가시화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사라져가는 생산물'로서의 종이를 서사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영화는 새로운 산업적·기술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노동 가치 역시 구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음을 은유적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자본주의 체계가 노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인간 노동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현상과 긴밀하게 연동된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생산적'일 때 그 가치가 인정되는데, 이 생산성의 기준은 전통적으로 속도, 기술, 숙련도 등 인간 고유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어왔다. 그러나 현대 기술 문명에서 AI가 효율성의 절대 기준으로 부상함에 따라 노동의 가치는 더 이상 인간의 역량을 기준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계와 달리 인간의 노동(력)은 고유한 특수성을 지닌다. 인간의 노동은 필수재인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본질적으로 파괴

43) J.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 Lasl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Second Treatise, §27, §40-43.

적이고 소모적인 측면을 지닌다. 다시 말해, 인간은 건강, 피로, 정서 등 생물학적 조건이나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변수들에 의해 수행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인간 노동의 생물학적 기반과 그에 따른 비고정성 및 가변성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자동화·기계적인 산업 구조가 추구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력(생산물의 양, 품질)과 구조적으로 충돌한다. 요컨대 인간 노동의 생물학적 조건은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현대 자본주의 생산체계와 구조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데, 이러한 불일치는 현대 생산체계의 평가 논리가 체계 내부에서 인간 노동의 가치를 점진적으로 소거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아울러 영화에서 제시되는 최선출의 이탈 사례는 기업의 관점에서 노동자가 지닌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기능한다. 영화는 선출을 통해 노동자가 생산 시스템의 규칙이나 장기적 이익 및 효율성 보다는 개인적인 이익과 단기적 목표를 우선시하며 합리성과 규범으로 조직된 체계로부터 이탈하는 노동자의 일면을 노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탈은 자본과 기술 체계의 관점에서 노동자가 업무 외적인 요인(감정, 욕망, 상황적 판단)에 의해 노동 수행 방식이 쉽게 변화할 수 있는 비일관적인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다. 이에 자본주의적 생산 질서 안에서 인간이 지닌 구조적 취약성(소모성, 가변성, 이탈 가능성)과 집단적 저항의 가능성은 노동자를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기계 및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기술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구조적 경향을 추동한다.⁴⁴⁾

44) 이에 자동화된 기술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대체는 단순한 기술적 전환이 아닌 노동이 자본의 효율성과 계산 논리 속으로 환원되는 ‘노동의 자본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AI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생산 수단의 지위를 벗어나 노동의 선별, 배제, 통제를 수행하는 권력 장치로 전환될 수 있다.

오늘날 AI는 인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에서 노동자의 가치는 인간 고유의 역량보다 체계에 대한 정합성과 기능적 호환성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노동 가치의 평가 기준과 기술 자본의 논리가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산업 구조의 재편 속에서 노동자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재규정될 전망을 보여준다. 노동자는 고유한 생산적 주체에서 기능 단위(“톱니바퀴”⁴⁵⁾)로 축소될 것이며, 노동의 의미나 가치도 인간의 기술이나 경험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평가 체계에 의해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AI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성⁴⁶⁾이 더욱 강조되는 한편, 그 외 단순 작업이나 비숙련 노동자는 손쉽게 대체가 가능한 자원으로 간주되어 고용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다.⁴⁷⁾ 다시 말해, <어쩔수가없다>는 서사적 주체가 실직 상태에서 경쟁자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구직에 성공하는 서사를 통해 ‘노동을 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뿐 아니라 현(現) 체계의 효율성 기준에 의해 ‘노동을 수행하는 인간’이 문제화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45) 만수는 경쟁자를 유인하기 위해 가상의 기업 [레드페퍼 페이퍼]를 홍보하고 그 캐치프레이즈로 “기계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하면서 노동을 가족 공동체의 언어로 포장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 자체가 허구이고 주체가 지원자를 제거한다는 영화 내 설정은 해당 문구가 표방하는 가족적 공동체가 기술·자본 중심의 생산 체계 속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박찬욱, <어쩔수가없다>, 2025.

46) 제2의 기계시대에서 이 전문성은 표준화된 지식이나 정보의 소유가 아닌 경험을 통해 체화된 판단력, 추론능력, 해석력, 그리고 창의적 사유 능력으로 의미화된다. 에릭 브린올프슨·앤드루 맥아피, 앞의 책, 173쪽.

47)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숙련된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덜 숙련된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를 ‘숙련 평향적 기술 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라고 명명한다. 위의 책, 173쪽.

그리고 이와 같은 노동자 지위의 변동은 고용 구조의 재편을 넘어, 노동이 인간 존재를 지탱해온 방식 자체의 변화를 수반한다. 앞서 언급했듯, 인간이 삶(신진대사 및 생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필요하며, 이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노동이다.⁴⁸⁾ 이에 '생존의 필연성(anagkai)⁴⁹⁾으로서 노동은 개인의 생존뿐 아니라 인간 종(種)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토대로 기능해왔다.⁵⁰⁾

나아가 노동은 단순한 신체 유지의 조건이 아니라 인간이 '실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의미화되어 왔다. 로크는 노동을 소유와 부, 모든 가치와 인간성(자기효능감, 사회·공동체 참여 및 기여 등) 자체의 근원으로 간주했으며,⁵¹⁾ 아렌트 역시 인간의 실존 조건으로 '활동적 삶(vita activa)'을 제시하며, 활동적 삶을 구성하는 요소로 노동, 작업, 행위를 지목한 바 있다.⁵²⁾ 이러한 사상적 맥락에서 노동은 생산성의 원천이자 인간성의 표현, 그리고 인간적인 삶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실존적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⁵³⁾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자 지위의 변동 또는 실직(노동 기회의 박탈)은 노동을 하나의 직업적 지위나 경제적 기능으로 한정하는 관점을 넘어, “노동이 인간 존재를 어떻게 지탱해왔는가?”라는 노동의 존재론적 의미를 질문하게 한다. 즉, 노동이 사회적 질서 속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과 위상을 점유하는가를 결정하는 핵심적 매개로 기능한다는 점을 전제할 때, 실직은

48)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한길사, 2021, 187-188쪽.

49) 여기서 아렌트는 '필연성'을 각각 로크와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삶에 대한 절박함'과 '직접적인 육체적 욕구의 지배'라고 구체화한다. 정리하자면, 노동이 삶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위의 책, 188쪽, 194쪽.

50) 위의 책, 85쪽, 195-196쪽.

51) J. Locke, 앞의 책, §27, §40-43.

52) 한나 아렌트, 앞의 책, 83쪽.

53) 위의 책, 83, 190쪽.

경제적 기반의 상실을 넘어 인간이 자신을 인식하고 관계 맺어온 방식 전반에 균열을 초래하는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실직 이후 주체의 지위 변화를 재현하는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화는 ‘가장(家長)’이라는 상징적 지위를 매개로 노동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역할, 관계, 가치체계 전반을 구성하는 실존적 기반임을 서사적으로 형상화한다. 이에 해당 서사에서 만수의 살인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 선택/범죄 행위로만 단순화될 것이 아니라, 노동을 매개로 형성되어온 주체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이 붕괴된 상황에서, 그가 이를 복원하고자 하는 실존적 대응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후술하자면, 영화에서 만수의 실직은 즉각적인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대신 영화는 실직 이후,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에 실패함에 따라 주체가 자기인식과 결부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사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의 살인 동기가 경제적 궁핍이 아닌 노동을 매개로 형성된 정체성의 붕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설정은 만수의 실직 이후,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그의 능력과 위계가 점진적으로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주체가 경험하는 위기의식이 심화되는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만수는 [파피루스] 면접을 앞두고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내 미리에게 질문한 바 있는데, 미리는 만수가 ‘식물인간’인 것이 단점이라고 지적한다. 미리는 이를 두고 만수가 식물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은유는 의식과 운동 기능을 상실한 채 대사 기능만이 유지되는 ‘식물인간’의 사전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환기시킨다. 즉, 해당 발화는 생계유지라는 경제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한 가장의 무능력함을 노출하며, 만수가 이미 가족을 부양하는 주체로서의

능력과 위계를 상실해가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제시한다.

이어서 영화는 자신보다 사회적·경제적 역량이 뛰어난 남성으로부터 구애를 받는 아내, 아버지를 대신해 다시 노동 시장에 뛰어들어 어머니를 돕기 위해 절도를 저지른 아들을 통해 주체의 열등감과 존재론적 위기의식이 점층적으로 심화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배치함으로써 그의 정체성 구조 내부에 축적된 불안과 욕망을 가시화한다.

따라서 만수는 구범모에게 “돈을 못 벌면 집이라도 팔아! 마트 가서 짐이라도 날라!”라고 질타하지만, 정작 자신은 비싼 타운하우스를 처분하지 않고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선택하지도 않는다.⁵⁴⁾ 서사 안에서 주체의 행위는 일관된 욕망에 의해 추동된다. 그는 기존의 생활 수준, 가족의 정서적 안정,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상징적 지위를 유지하길 욕망한다. 따라서 만수는 가족의 식사에 고기반찬이 오르길 원하고, 아내가 노동 대신 취미생활을 지속하길 바라며, 넓은 집에서 반려전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길 열망한다. 이에 그는 기존에 자신이 누려온 생활 양식과 앞서 열거한 지위재(positional goods)⁵⁵⁾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지켜내는 데 강박적으로 집착한다.

따라서 주체가 인식하는 ‘위기’란 노동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기존 질서

54) 이러한 면모는 서사 초반에 만수가 마트에서 짐을 나르던 일을 갑자기 그만두고 파피루스 면접 제안을 수락하는 장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만약 주체에게 돈이 절대적인 가치였다면, 그는 채용 여부조차 보장되지 않는 면접을 위해 일용직 노동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확실한 수입원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채용 가능성을 선택한 주체의 태도는 그가 생계 자체보다 ‘가장’으로서의 상징적 지위와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직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만수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자신이 원래 속해 있다고 믿는 사회적 위치(정체성)로의 복귀다.

55) ‘지위재’는 본원적 편익이 아니라 상대적 특성(희소성 등)에 입각해 지각된 가치로서의 소비재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지위와 과시적 소비의 맥락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다. F. Hirsch, *The Social Limits to Growth*, Taylor & Francis, 2025, Ch.3.

와 자기 정체성이 붕괴되는 현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주체가 특정한 '자리(직위)'를 획득하기 위해 단행한 살인은, 경제적 궁핍이라는 외부 압력의 결과라기보다 노동을 통해 구성된 자기정체성(자아)과 사회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주체의 실존적 동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영화는 노동이 개인의 실존을 구성하고 정당화하는 핵심적 조건으로 기능함을 전제하는 동시에, 기계화·자동화된 생산체계가 이러한 노동의 실존적 의미를 침식하는 구조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렌트는 이전부터 생산의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의 수고와 고통을 신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 의미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 이는 노동이 인간적 의미⁵⁶⁾를 창출하는 실존적 행위에서 소비 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기능적 반복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고한다. 요컨대 자동화된 생산체계는 인간의 수고를 경감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렌트의 관점에서 이는 인간의 활동적 삶을 단순 소비 메커니즘으로 축소시키며 노동의 본래 의미를 희석시키는 존재론적 전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은 다시 <어쩔수가없다>가 재현하는 서사에서 구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앞서 노동의 실존적 의미를 검토하면서 AI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이 자본주의적 축적 논리와 효율성 중심의 가치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인간의 이상(理想), 윤리, 타자와의 공생 등의 가치를 주변화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인간에게 '노동의 부재(상실)'가 단순히 생계 유지의 문제를 넘어, 인간이 자기 존재를 세계(사회) 속에서 확인하고 정당

56) 아렌트는 이러한 인간적 의미를 '감각의 필연성'이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인간이 '생산물' 외에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기효능감, 자아실현, 주체성·행위성, 윤리적 자긍심, 사회적 인정 등 실존에 대한 감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화하는 실존적 기반이 위태로워지는 존재론적 조건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러운 것 위에서 맛있는 게 자란다 이거야.”라는 만수의 발화는 영화 전체가 지적하는 현 사회의 구조적 아이러니를 은유적으로 제시한다. 즉, 해당 발화는 AI 중심의 기술 발전이 인간적 영역의 해체를 대가와 토대로 삼아 성립하고 있다는 역설을 함축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범용 기술의 확장과 고도화가 도덕적 판단 능력, 타자에 대한 윤리, 연대 감각과 같은 인간적 특성들을 ‘비효율적 요소’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환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화는 자본주의 및 기술·효율 중심의 논리가 생산 구조 내부에서 인간적 요소를 ‘더러움,’ 즉, 결함이자 제거해야 할 불순물로 치부하며, 해당 논리가 이 결함을 노동자에 대한 기술적 대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전유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인간적 규범이 폐기된 질서 속에서 노동자는 신뢰 가능한 생산 주체가 아니라 체계가 관리하고 제거해야 할 구조적 결함으로 재규정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실수나 부패, 윤리적 동요 등의 변수(오염 요소)가 발생할 때마다, 자본과 기술 체계는 이를 인간 노동의 한계로 환원시키며 그 대안으로 노동자 대신 AI 및 자동화 시스템의 전면화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화 속 주체의 발화는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술 질서가 인간적 규범의 해체를 전제 조건으로 삼아 발전한다는 현(現)·미래 산업 구조의 역설을 지적하는 대사로 기능한다. AI 기술의 확장과 자동화 체제의 강화가 인간 노동의 가치 상실, 윤리적 판단의 주변화, 그리고 인간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환원하는 탈인간화 과정과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진술인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화기애애한 연출과 달리, 만수가 ‘감상적 아날로그’를 표상하는 고시조를 묻은 자리에 사과나무(선악과 나무)를 심는 장면은

포스트휴먼 디스토피아적 전환의 전조(前兆)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어쩔수가없다〉의 포스터에 등장하는 뱀과 사과나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 (〈그림 3〉 참조), 사과나무는 한때 금단의 지식으로 간주되었던 AI 기술이 기술적 합리성과 효율성의 가치 하에 인간적 선의와 감수성의 소멸을 자연화·정당화하고, 그 결과 탈인간화를 지향하는 기술 중심의 가치체계가 새로운 규범적 권력으로 전화(轉化)되는 포스트휴먼 디스토피아의 전조를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어쩔수가없다〉 영화 포스터 속 사과나무와 뱀⁵⁷⁾

그리고 영화 속 이러한 상징은 기술 문명이 약속하는 해방의 서사가 무엇을 대가로 성립되는가를 되묻게 한다. 요컨대 선악과가 ‘신과 같이 될 것’

57) 포스터에서 사과나무는 고시조가 묻힌 자리에서 열매를 맺었으며, 뱀은 구범모의 집에 있던 벌레가 낡는 배나무에 자리하고 있다.

이라는 달콤한 약속 속에 타락의 결과를 숨기고 있었듯,⁵⁸⁾ 영화가 제시하는 AI 기술 또한 유토피아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인간을 유혹하지만, 기술적 질서가 인간적 가치체계를 비가역적으로 대체하는 순간, 이는 오히려 인류를 디스토피아적 국면으로 전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AI 기술이 인간에게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지만, 실상은 인간으로부터 노동의 의미와 생계 수단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해당 장면은 선악과 서사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쩔수 없었다〉는 기술 문명이 약속하는 해방이 실상 인간에게 새로운 형태의 ‘종속’과 ‘자유 박탈’을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창세기〉의 선악과 서사와 알레고리적 대응 관계를 이룬다.

해당 지점에서 ‘노동’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맥락이 중요해진다. 특히 인간의 타락 이후, 인간에게 노동이 숙명적 조건이자 생존의 필연성으로 부과되었고,⁵⁹⁾ 근대 이후에 이 노동이 인간의 실존을 구성하는 핵심적 기반으로 재의미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화 안에서 해당 장면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분명해진다. 즉, AI·디지털 기술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의 생계 수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기 존재를 세계 속에서 정당화해온 조건이 해체되는 데 있다. 따라서 영화는 해당 장면을 통해 AI·디지털 기술의 전면화를 통한 자동화와 효율성의 진전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기보다는 그를 사회적·

58)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5절.

59)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7-19절.

존재론적 기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어서 만수의 딸 리원이 새로운 직장으로 첫 출근을 하는 만수가 건네는 하이파이브를 무시하고 “벌레가 뚫어가지고 다 죽어 가더라?”라고 말하는 장면은 만수가 기여한 기술 중심의 질서가 초래한 디스토피아적 결과를 다음 세대의 시선에서 환기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만수의 선택이 남긴 파국적 귀결을 후속세대의 목소리를 통해 가시화함으로써 주체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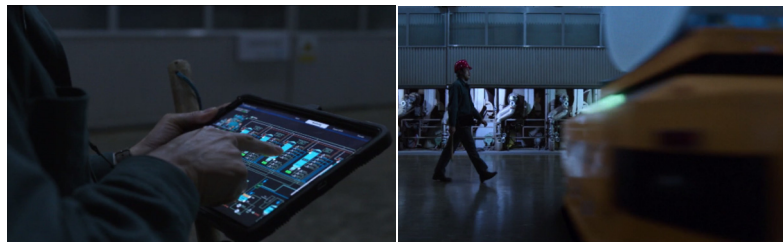
이처럼 〈어쩔수가없다〉는 AI 기술의 발전과 확장이 현 사회의 구조와 규범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근대적 인간관과 그것에 기초해 형성된 규범 및 사유의 방식이 더 이상 보편적이고 자명한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미래의 상황을 문제화한다.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해 기존 규범이 그 의미와 효용을 잃어버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해온 인식의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나아가 아렌트는 인간 활동(노동, 작업, 행위)의 산물이자 인간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사물들이 도리어 창조자인 인간을 제약하고 지배하는 역전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⁶⁰⁾ 영화는 바로 이러한 주객의 전도를 기술 문명의 내부에서 재현한다. 구체적으로 영화는 서사의 말미에 주체(만수)에게 전체 생산 과정을 감독하는 전자동 공장의 관리자 역할을 부여하지만, 기계들 사이에서 고립된 주체의 모습과 그의 통행을 가로막는 로봇을 배치함으로써 의사결정 및 통제의 주체가 이미 인간에서 기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그림 4〉 참조).⁶¹⁾ 현재로서는 인간이 기계를

60) 한나 아렌트, 앞의 책, 86쪽.

61) 만수가 공장을 걷는 중에 등장한 첫 번째 이동식 로봇이 만수의 움직임을 읽고 만수를 피해간다. 그러나 두 번째 로봇부터는 만수가 로봇의 움직임을 읽고 로봇이 다니지 않는 길로 피해 다닌다.

감독하는 형국일지라도, AI 기술이 확장되고 확산될수록 인간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통제권’과 ‘감독권’이라는 권력의 핵심축이 기술 체계로 이행되는 과정을 형상화하는 것이다.⁶²⁾ 이는 기존의 노동자는 자본가의 외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정 부분 노동의 자율적 운영과 판단이 가능했지만,⁶³⁾ 자동화된 생산체계에 서는 그러한 행위성이 제거되어 노동자가 관리와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릴 미래를 지시한다.



① 시스템 창을 통해 전자동 공장을 가동하는 만수 ② 공장이 가동되면서 로봇이 다니는 길을 피해 걷는 만수

〈그림 4〉 의사결정 및 통제 권한이

인간에서 기계로 이행되는 권력 전환이 영화 안에서 형상화된 장면

따라서 결말부에 등장하는 전자동 공장은 감독이 상정한 현대 기술 문명의 도착 지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공간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쩔수가없다〉가 제시하는 디스토피아적 징후는 인간과 기계의

62) 기계 및 설비를 관리·유지하는 기계공학자였던 고시조의 제거는 통제와 판단의 권한이 인간에서 기계로 이전되는 권력 구조의 전환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사는 본 해석의 요지를 보강한다.

63) 자본가가 노동의 과정을 전부 알지 못하고 노동자에게 기술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태연, 앞의 책, 79쪽.

관계가 초기에는 협업과 공생의 형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술 체계가 판단과 규범의 주체로 자리 잡는 순간 인간은 기계적 질서에 기능적으로 종속되고 인간의 본질 또한 인간 스스로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적 산물에 의해 규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기계가 숲을 파괴하고 나무를 베어내는 마지막 장면은 만수가 펜치로 자신의 치아를 뽑아내던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자연과 인간 신체가 ‘소모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되는 기술 문명의 논리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영화는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비교 속에서 인간이 현시점에서는 자신의 경쟁의 대상과 원인을 인간 집단 내부에서 찾고 있지만, 그 경쟁 구도가 점차 인공지능이라는 비인간적 주체로 전이되는 국면에 진입할 경우, 인간소외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⁶⁴⁾ 따라서 해당 장면은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한 채, 기술 체계와 알고리즘의 권력에 종속되는 새로운 계급 질서의 도래를 예고하는 장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술 문명(기계)에 의해 인간성(나무)이 제거되는 노동 생태계(숲)를 장면적으로 연출함으로써 기술 문명이 인류에게 제시하는 유토피아적 미래상이, 실상 인간성을 배제한 채 효율 중심의 노동 질서로 노동자를 편입시키는 강제적 체계로의 전환임을 폭로하는 것이다.

64) “기계들의 압도적인 크기와 소음에 찌부러진 듯 왜소해 보이는 만수. 노동자는 하나도 없고 로봇들만 왔다 갔다 한다. 만수, 기계들을 둘러본다. 드디어 여기 왔다. 행복한가? 허탈한가?” 박찬욱·이경미·돈 맥켈러·이자혜, 앞의 책, 186쪽.

4. 결론

제2의 기계시대의 기술은 이미 빠른 속도로 주류 경제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AI의 도입을 부추기는 경쟁 환경 속에서 현대문명은 이미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발전과 도입을 선택의 문제로 유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혹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이 융통성과 적응력을 발휘하여 앞으로의 진로 및 직업 선택을 두고 자동화가 이루어질 분야를 기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⁶⁵⁾ 그러나 어떤 분야나 업무가 이러한 자동화에 지속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만수의 사례가 보여주듯, AI 기술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된 현시대에 기술 발전의 영향은 이미 충분한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노동자에게조차 생존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자동화가 단순·반복 노동의 기계적 대체에 머물렀다면, 제4차 산업혁명의 국면에서는 인간 노동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마저 노동 가치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생활 조건과 기대 수준을 유지해온 인간 사회가 과연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영화 〈어쩔수가없다〉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디지털·자동화 기술이 결합된 현대의 산업 구조 속에서 이미 가동 중인 포스트휴먼 디스토피아의 징후적 서사로 위치시킨다. 이에 본고는 AI를 개별적 기술이나 인격화된 존재로 한정하지 않고, 노동, 윤리, 권력의 재편을 매개하는 기술 체계 전반으로 이해함으로써 영화가 포착하는 인간성의 퇴조와 주체 변형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 또는 기계

65) 에릭 브린올프슨·앤드루 맥아피, 앞의 책, 258쪽.

가 인류를 정복하고 말살할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기술적 진보의 문제로만 환원하지 않고 이를 노동·윤리·인간성의 재편이라는 근본적·구조적 문제로 확장함으로써 인간과 포스트휴먼(인공지능)의 제휴, 그리고 그 협력적 공생에 대한 낙관적 상상을 해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에 내포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고는 영화가 자동화·효율성 중심의 AI 기술 문명이 인간 노동의 가치를 구조적으로 축소하고 실효화하는 과정을 제지 산업이라는 아날로그적 기반의 쇠퇴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영화 내 '종이'라는 생산물이 지니던 지속성과 교환 가능성의 상실은 그 생산에 투입되던 인간 노동의 사회적·경제적 의미가 중심으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을 함축하며, 이는 인간 노동력의 특성과 연계되어 디지털·AI 기술 앞에서 점진적으로 주변화되고 불필요한 존재로 재배치되는 시대적 전환(종의 교체)의 징후로 기능한다. 이에 영화가 재현하는 인간성의 퇴조는 기술적·산업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간이 노동자(생산자)로 위치 지워지지 못하는 구조적 조건이 초래한 결과로 제시된다.

특히 실직 상태의 주체가 경쟁자인 다른 인간을 제거하는 서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 속에서 인간이 아닌 기술 체계가 규범과 판단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비대칭적 권력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인간성'은 효율성과 생존의 논리 앞에서 약점이자 장애물로 간주되고, 주체는 기술 체계의 논리를 내면화한 '반인간적 주체'로 전환된다. 그리고 영화는 이러한 서사적 주체의 변화를 급진적 타락으로 제시하지 않고, 인간성이 비효율적 요소로 재의미화되는 구조에 주체가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비인간화의 국면을 경유한 뒤, 마침내 인간적 규범을 적극적으로 파기하고 타인을 제거하는 반인간적 전환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

적으로 배치한다. 이로써 영화는 AI 기술과 생산성·효율성을 지향하는 자본주의가 경쟁을 극대화하고, 그러한 생존 조건이 인간성을 구조적으로 침식시키는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진보가 필연적으로 인간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로크, 애덤 스미스,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정의한 노동 개념을 참조하여, 영화가 서사 전반에서 노동을 인간이 자기 존재를 정당화하고 실존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 조건으로 재현하고 의미화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관점에서 본고는 영화 속 주체의 실직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생존의 직접적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동을 매개로 형성되어온 ‘가장’이라는 상징적 지위와 자아 정체성이 훼손되면서 촉발된 실존적 불안이 표출된 결과로 해석했다.

나아가 본고는 영화에 배치된 장면적 은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동의 박탈이 주체의 인간성 상실로 귀결되는 영화 내 서사 구조를 해석하고, 자동화된 기술 체계가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기보다 사회적·존재론적 기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영화가 서사적 차원에서 문제화하고 있음을 논증했다. 특히 고시조의 죽음과 전자동 공장의 공간적 연출, 그리고 사과나무에 내포된 상징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기술 문명이 약속하는 해방의 서사가 어떤 대가 위에서 성립하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영화 내 이러한 역설이 동시대 기술 담론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음을 규명했다. 즉, 현시점에서 AI 기술은 인간에게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약속은 실상 인간으로부터 노동의 실존적 의미와 인간의 존재 조건을 구조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역설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역설은 〈창세기〉의 선악과 서사와 알레고리적으로 대응되며, 이를 통해 영화는 기술 발전이 인간을 신적 위치로 상승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인간을 기술 체계에 종속시키는 존재론적 전도로 귀결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처럼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제2의 기계시대 속 주체의 전환 과정을 형상화하는 서사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확장이 기존 노동 질서와 노동 규범의 변화를 야기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인식해온 방식과 존재 이해의 원리 자체가 기계 문명의 논리에 의해 재편될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를 통해 영화는 AI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단순한 미래적 상상이나 예측을 넘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인간의 조건과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는 제4차 산업혁명과 제2의 기계시대라는 변곡점에서 인류에게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가 기술 유토피아의 설계가 아닌, 자율성, 주체성, 윤리적 판단, 이타성과 같은 인간성의 핵심 조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간-포스트휴먼의 관계를 상호협력의 관계로 설정할 수 있는 문화적 규범과 윤리체계의 재정립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재편되는 동시대적 조건 속에서 인간성과 인간의 조건을 비판적으로 재사유하려는 감독의 담론적 시도가 어떻게 작품의 서사와 서사적 주체를 통해 구축되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이로써 본고는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AI 시대 속 기술의 진보가 필연적으로 인간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술 진보에 대한 낙관론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앞으로 다가올 사회적 위기와 문제들에 대비하는 사유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하는 동시대적 텍스트로 평가하며, 본 연구가 선행연구로서 해당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하나의 분석적 관점을 제시했길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찬욱, <어쩔수가없다>, 2025.

박찬욱·이경미·돈 맥켈러·이자혜, 『어쩔수가없다 각본』, 을유문화사, 2025.

2. 논문과 단행본

계승균,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규범』,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고바야시 마사카즈, 『인공지능이 인간을 죽이는 날』, 한진아 역, 새로운 제안, 2018.

김건우,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파이돈, 2023.

김휘택, 『포스트휴먼: 담론으로 만들어진 존재』, 경진출판, 2025.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 『엑스』, 최필원 역, 오픈하우스, 2025.

로랑 알렉상드르, 『넥스트 인텔리전스: 인공 지능 시대, 인류의 다음을 설계하다』, 임호경 역, 열린책들, 2025.

로지 브라이도터,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16.

마크 그레이엄·제임스 멀둔·켈럼 캔트,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 인공지능 신화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김두완 역, 흐름출판, 2025.

스튜어트 러셀,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이한음 역, 김영사, 2021.

에릭 브린올프슨·앤드루 맥아피, 『제2의 기계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이한음 역, 청림출판, 2016.

토마스 랍게, 『누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나?: 생각하는 기계 시대의 두려움과 희망』, 이수영·한종혜 편역, 다섯수레, 2021.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한국포스트휴먼학회,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사회의 규범 3: 포스트휴먼 사회와 새로운 규범』, 아카넷, 2019.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한길사, 2021.

한세경, 『인공지능 권력시대: 원시시대부터 AI시대까지의 인류사회 권력구조 변천사』, 아이리포, 2025.

- 헨리 A. 키신저·에릭 슈미트·대니얼 허튼로커, 『AI 이후의 세계: 챗GPT는 시작일 뿐이다, 세계질서 대전환에 대비하라』, 김고명 역, 월북, 2023.
- 헨리 키신저·에릭 슈미트·크레이그 먼디, 『새로운 질서: AI 이후의 생존 전략』, 이현 역, 월북, 2025.
- 황태연,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변혁』, 도서출판 증원문화, 2019.
- C. Chace, *The Economic Singulari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Death of Capitalism*, Three Cs Publishing, 2016.
- F. Hirsch, *The Social Limits to Growth*, Taylor & Francis, 2025.
- J.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 Lasl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Second Treatise.
- L. Kai-Fu, *AI Superpowers China, Silicon Valley, and the New World Order*, Houghton Mifflin, 2018.
- M. Ford. *Rise of the Robots: Technology and the Threat of a Jobless Future*, Oneworld Publications, 2015.

3. 기타 자료

- J. Briggs·D. Kodnani, “The Potentially Larg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Economic Growth”, Goldman Sachs, 2023.05.26., <https://www.gspublishing.com/content/research/en/reports/2023/03/27/d64e052b-0f6e-45d7-967b-d7be35fabd16.html>. (접속일: 2025.12.17.)
- K. Tangalakis-Lippert, “IBM halts hiring for 7,800 jobs that could be replaced by AI, Bloomberg reports”, Business Insider, 2023.05.02., <https://www.businessinsider.com/ibm-halts-hiring-for-7800-jobs-that-could-be-replaced-by-ai-report-2023-5>. (접속일: 2025.12.17.)
- L. Karabarounis·B. Neiman, The Global Decline of the Labor Share, NBER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3, 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19136/w19136.pdf. (접속일: 2025.12.17.)

Abstract

The Erosion of Humanit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A Symptomatic Narrative of Posthuman Dystopia in *No Other Choice*

Kim, Gia(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human nature and the status of the worker are reconfigured and placed in crisis during the technological transi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o-called Second Machine Age through an analysis of the narrative and narrative subject of Park Chan-wook's film "No Other Choice".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represented as a personified entity in the film, as is often the case in science fiction cinema, this paper conceptualizes AI as a technological system integrated with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film captures the erosion of human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subjectivity. Drawing on posthumanist and AI dystopian discourse, as well as Hannah Arendt's concept of labor, this paper investigates how automation-centered industrial structures marginalize human labor and devalue human qualities.

The film presents the decline of the paper industry—an analog foundation of production—as a key medium through which human labor is gradually repositioned as expendable in the face of digital and AI technologies. Through a narrative in which an unemployed subject eliminates competing humans, the film reveals that the human-machine relationship is being reorganized not as one of cooperation or coexistence, but as an asymmetrical power structure. In this process, human qualities are redefined as vulnerabilities or obstacles to efficiency and survival, and the subject is transformed into an anti-human figure who has

internalized the logic of the technological system. This study argues that the film does not reduce this transformation to individual moral failure, but instead narrativizes it as a structural consequence produced by the convergence of capital and AI-driven automation.

“No Other Choice” dismantles the optimistic myth that the advancement and expansion of AI technologies will liberate humans from labor, and instead functions as a symptomatic narrative of posthuman dystopia that exposes how automated technological civilization erodes the existential foundations and ethical conditions of human life. Through this narrative, the film suggests that the central task of the AI era lies not in the design of a technological utopia, but in the critical rethinking and reconstruction of the conditions and roles of humanity.

(Keywords: No Other Choice, Park Chan-wook, Posthuman, Dystopia, Artificial Intelligence, AI, Labor, Work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econd Machine Age)

논문투고일 : 2026년 1월 8일
심사완료일 : 2026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 2026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6년 2월 14일